



KIEP 기초자료
23-08

2023년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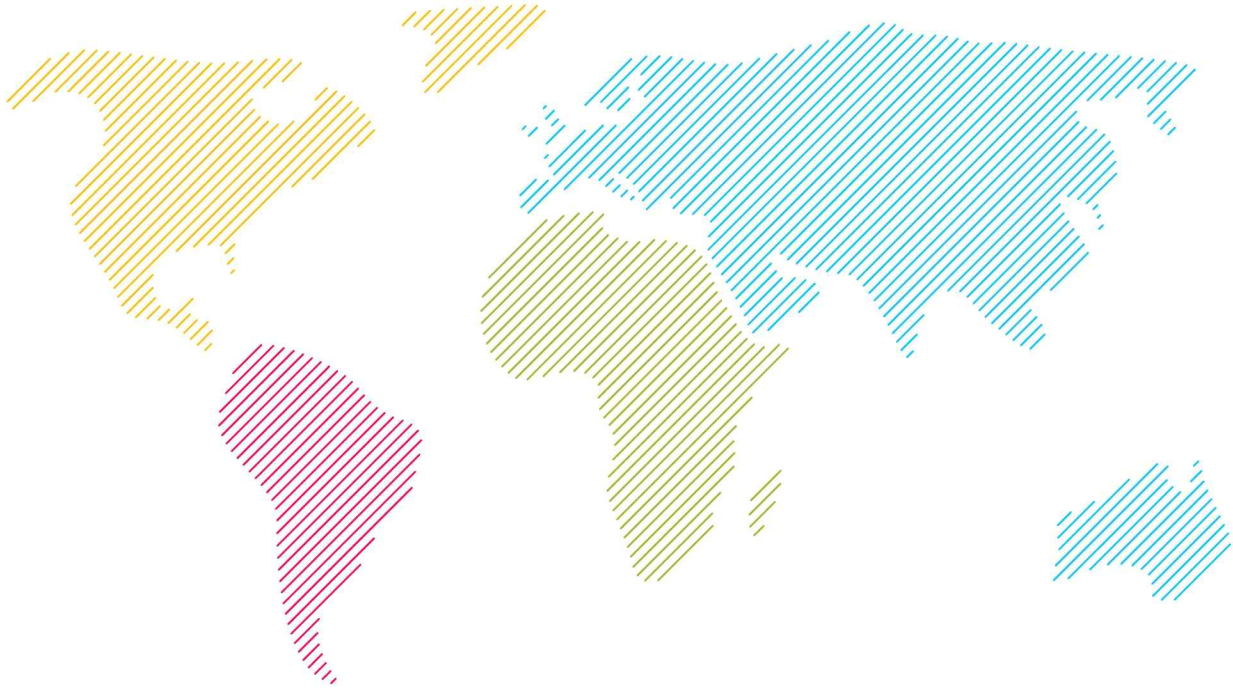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오지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부연구위원
(gyoh@kiep.go.kr, 044-414-1270)
박소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연구원
(sojeong@kiep.go.kr, 044-414-1241)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자원동향과 시사점

요약

- ▶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비전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평화구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세계평화지수(GPI: Global Peace Index)는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UN, OECD DAC 등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 KIEP가 실시한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 동기 2위가 세계 평화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원조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과반 수를 차지했음.
- ▶ 국제사회는 주로 국가별 다면적 취약성 분석과 HDP Nexus 접근을 토대로 분쟁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2%를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취약성은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 재난 위험, 대응역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별 특수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세계은행, OECD DAC, EU는 각 기관의 분류기준에 따른 취약국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지원받은 상위 5개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콜롬비아·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였음.
 -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한 상위 5개 공여국은 미국·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이었음.
- ▶ 한국은 분쟁취약국 지원목표를 포함한 취약국 지원전략 및 유관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1%를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규모의 ODA를 지원한 상위 5개 수원국은 앙골라·인도네시아·베트남·엘살바도르·라오스였음.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에 참여해왔고 취약국 지원 전략, 인도적 지원 전략, 다자협력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여 분쟁취약국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국제사회의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과 맞춤형 접근을 병행하고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개발·평화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HDP Nexus 접근을 활용하여 개발·평화 ODA를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노력 간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 비중이 낮고, 분쟁취약국과의 협력 비중도 낮으므로 분쟁취약국을 타기팅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차 례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가. 연구배경
 - 나. 연구 목적 및 범위
2.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 가. 취약국과 분쟁취약국 기준 및 분류
 - 나.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논의
 - 다.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 라. 주요 공여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3.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 가.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 나.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전략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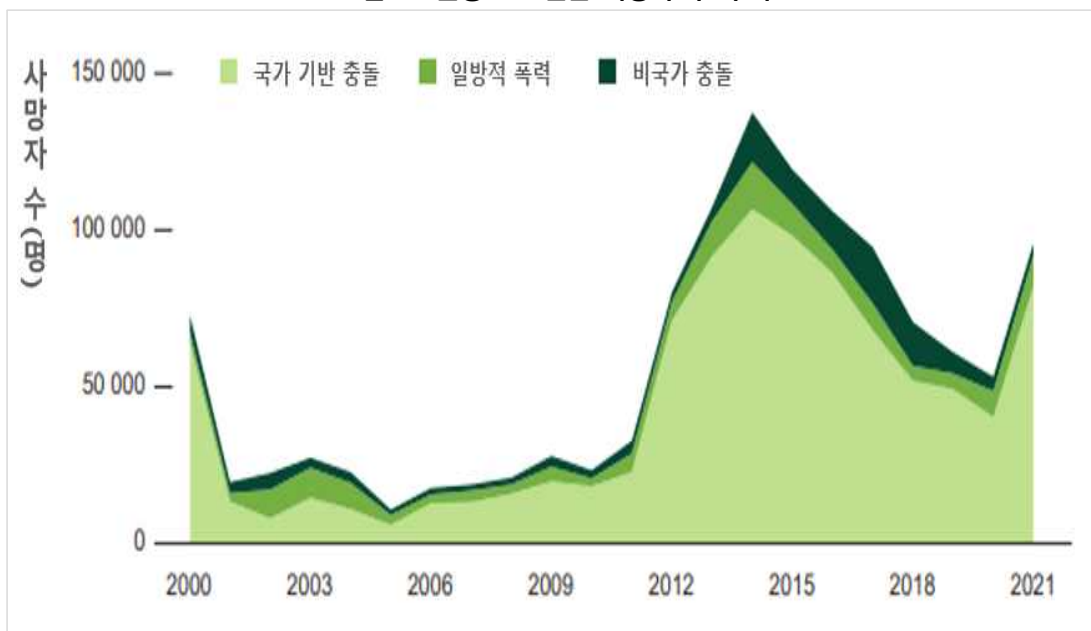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취약성이 확대되면서 폭력·분쟁 발생률이 증가하고 세계평화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 이때 취약성이란 국가·시스템·지역사회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시 이를 관리·흡수·완화할 역량이 불충분한 상황을 의미¹⁾하며, 폭력과 범죄는 위험상황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폭력은 국가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취약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갈등 및 정치폭력이 증가하는 등 폭력과 취약성 간의 악순환이 나타남.²⁾
 -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과 2021년 사이 취약상황 악화로 104% 증가했음.

그림 1.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추이



주: 국가 기반 충돌은 정부 및 영토와 관련하여 두 당사자 간 무력 사용으로 25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 일방적 폭력은 국가 정부 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민간인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25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 비국가 충돌은 정부가 아닌 두 무장 단체 간 무력사용으로 25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함.³⁾

자료: OECD(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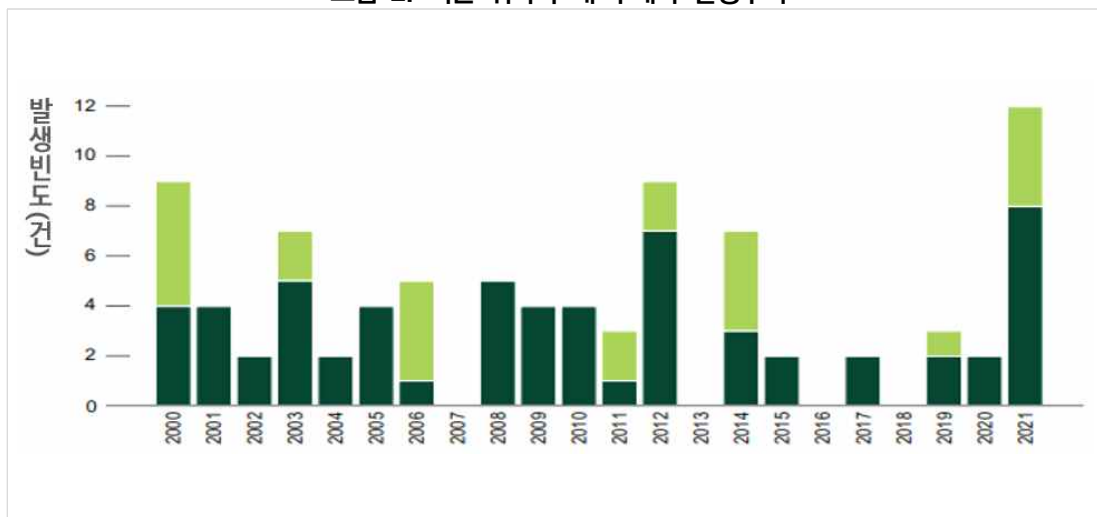
- 실제 2019년 이후 발생한 17건의 쿠데타 중 12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함.

1) <https://www.oecd.org/dac/states-of-fragility-fa5a6770-en.htm>(검색일: 2023. 7. 20).

2) OECD(2022), "State of Fragility 2022," pp. 20-39.

3)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9727706128440736_33(검색일: 2023.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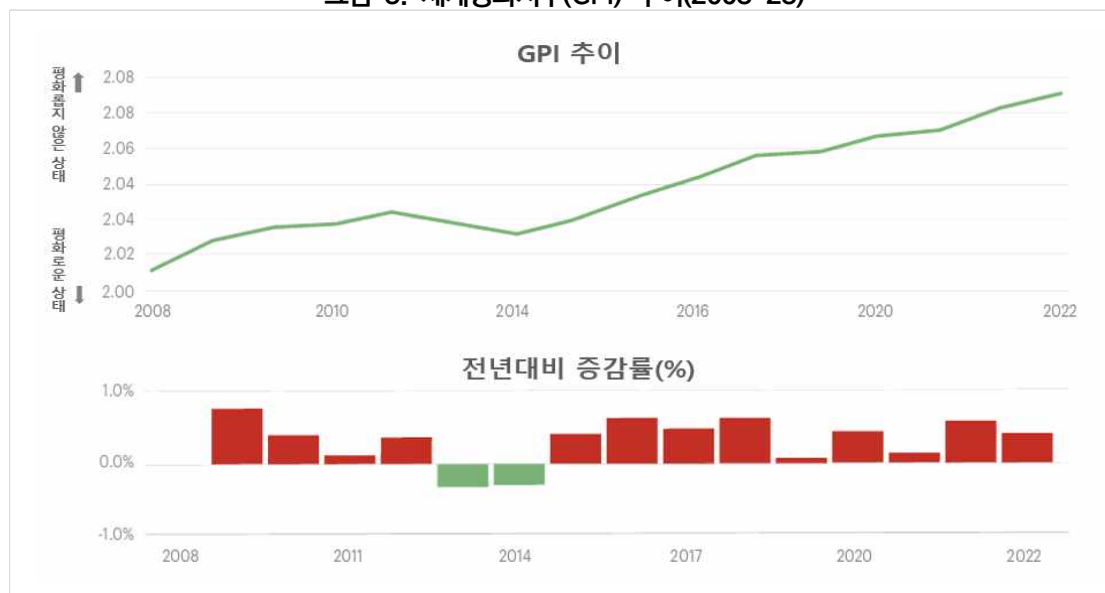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취약국 내 쿠데타 발생추이



주: 지난 22년간 취약한 상황(짙은 녹색)과 취약하지 않은 상황(연한 녹색)에서의 쿠데타 발생빈도
 자료: OECD(2022).

- 경제평화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최근 발표한 2023 세계평화지수(GPI: Global Peace Index)에 따르면 세계평화지수는 지난 9년간 연속으로 악화되어 2013년 이후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⁴⁾
 - 2023년에는 국별 평화지수가 84개국에서 개선, 79개국에서 악화되었으나 지역 및 글로벌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세계평화지수'는 악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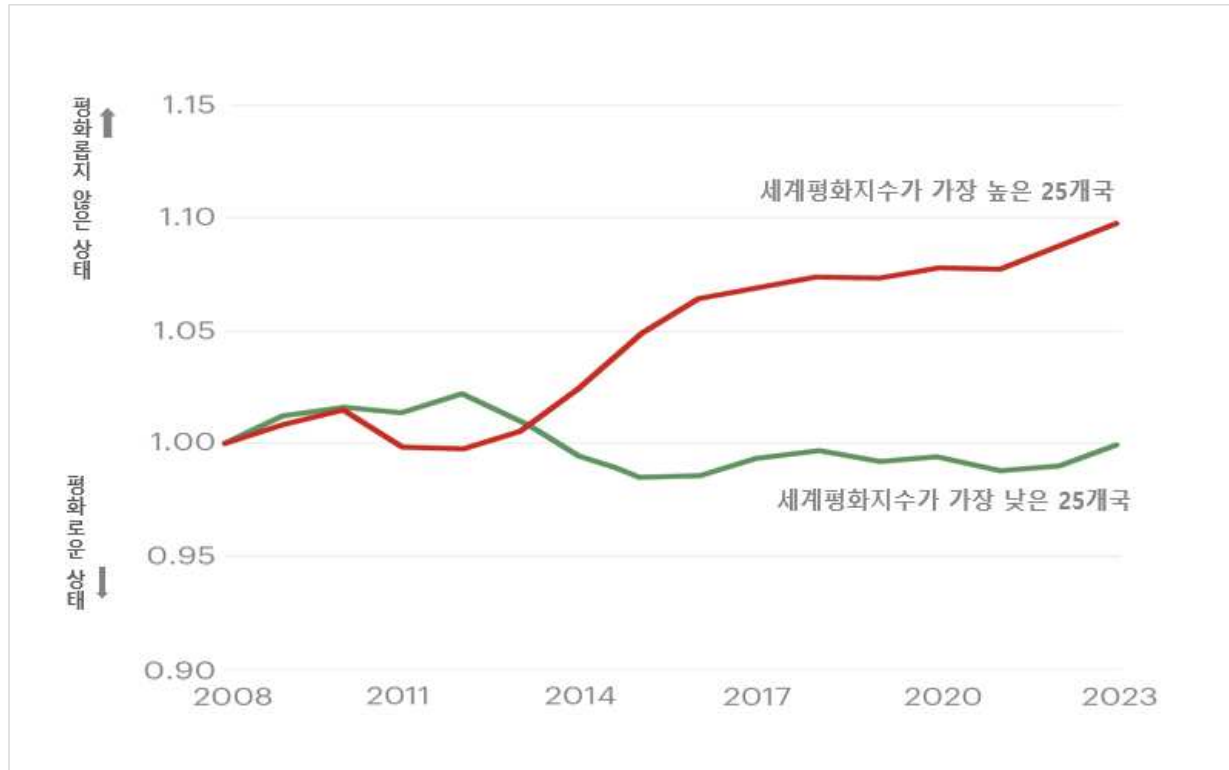
그림 3. 세계평화지수(GPI) 추이(2008~23)



주: 세계평화지수가 낮을수록 평화로운 상태임.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2023).

4) 세계평화지수는 3개의 축(포용성/정의/안보)과 11개 지표(포용성) 교육, 고용, 휴대폰 사용률, 재정포용성, 의회대표성, (정의) 법적차별 부재, 남아선호, 차별적 규범, (안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조직화된 폭력)로 구성됨.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검색일: 2023. 6. 29);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2023), "Global Peace Index 2023," p. 26.

그림 4. 세계평화지수 상위 25개국과 하위 25개국의 평화 수준 격차(2008~23)



주: 세계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25개국, 가장 낮은 25개국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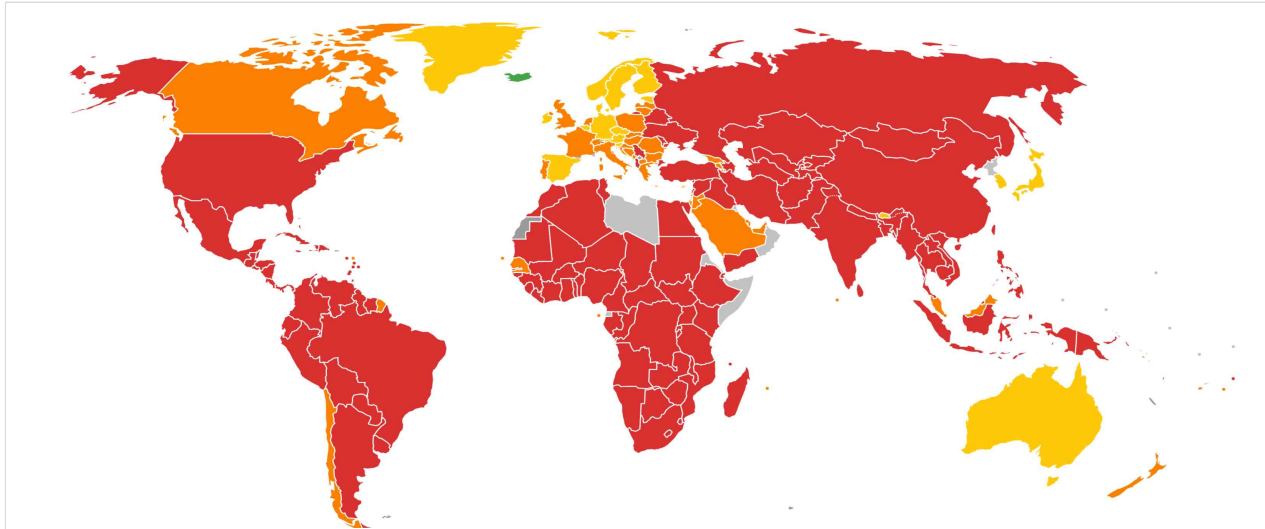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2023).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SDG16(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이행현황이 심각하거나 위험한 상태임.
 - SDG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⁵⁾
 - UN-SDSN은 SDG16 이행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살인범죄 건수, 감옥 내 미결수용자 비율, 밤중에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 출생신고비율, 부패인식지수, 5~14세 아동의 노동 비율,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규모(TIV), 언론자유지수, 사법 서비스 접근성, 10만 명당 수감자 비율 등을 고려함.⁶⁾

5) <https://sdgs.un.org/goals/goal16>(검색일: 2023. 7. 18). SDG16 세부지표는 △폭력 및 관련 사망률 감소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등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국내/국제 차원의 법치주의 촉진, 모든 사람이 정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 감소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 개발 △모든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 강화 및 확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기본적인 자유 보장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을 위한 국가 제도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시행 등을 포함함(<https://impactlibrary.net/entry/UN-SDGs-goal-16>, 검색일: 2023. 7. 19).

6) UN SDSN(2023),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p. 303.

그림 5. 세계 SDG16(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이행현황



주: 이행현황은 달성(초록), 주의(노랑), 위험(주황), 심각(빨강)으로 구분되며,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국가임.
자료: UN SDSN(2023).

■ 최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 내, 국가 간 분쟁은 분쟁 지역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분쟁의 파급효과는 주변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10여 년 이상 지속된 시리아 내전은 이라크·요르단·레바논을 포함한 마슈레크 지역 국가들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음.⁷⁾
 -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이라크·요르단·레바논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감소했음.
 - 3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난민 유입으로 운송, 보건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혼잡이 야기됨.
-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⁸⁾
 - 밀 수출 부문에서 러시아는 세계 1위, 우크라이나는 5위를 차지하는 등 이들 국가의 곡물 수출량이 전 세계 1/3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분쟁이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⁹⁾
 -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적용하는 등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EU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했으며, 미국 또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재허용함.¹⁰⁾
-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내전 또한 난민 발생 등으로 해당 국가와 주변 국가에 사회경제적 타격을 주었음.
 - 현재는 종식되었으나 2020년 에티오피아 내전 발생이 주변 국가인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등 주변 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제한되었음.¹¹⁾

7) <https://www.worldbank.org/en/region/mena/publication/fallout-of-war-in-syria>(검색일: 2023. 5. 12).

8) <https://www.un.org/en/desa/one-year-war-ukraine-leaves-lasting-scars-global-economy>(검색일: 2023.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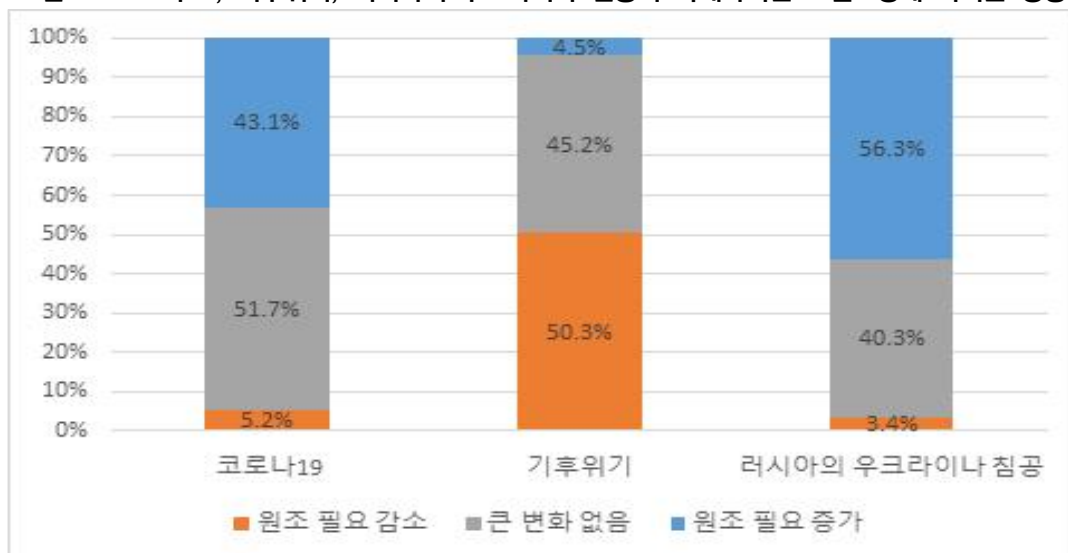
9) *ibid.* p. 2.

10) *ibid.* pp. 3-4.

11)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conflict-in-the-tigray-region-of-ethiopia/>(검색일: 2023. 5. 12).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에 파병된 자국 군대를 철수, 남수단 평화유지군 임무를 담당하던 티그라이 출신 장교와 외교관을 복귀시켰으며,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에 자국 군대를 파견했고 수단은 티그라인 난민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7311&mid=a30200000000&&sear>

-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내전으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등 여러 혼란이 야기됨.¹²⁾
 - 분쟁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해당하며 실제로 기아가 심각한 2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분쟁취약국에 해당함.¹³⁾
- KIEP에서 실시한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세계평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대한 국제 이슈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이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로 세계평화가 개도국 발전에 이어 두 번째였음.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개도국 발전 ②세계평화 ③인도적 이유 ④수원국 요청 ⑤민주주의 확산 ⑥경제적 이익 ⑦외교적 이익 ⑧이민 억제 ⑨기타 순으로 많았음.
 - 27개 중점협력국 중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로, 우크라이나가 베트남, 필리핀을 이어 3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 27위에 선정됨.¹⁴⁾
 - 우크라이나를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긴급성 △정치·외교적 중요성 등이 있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 원조 필요성을 증가시켰다는 의견이 56.3%를 차지했으며 이는 코로나 19나 기후위기에 대한 응답보다 더 높음.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국제사회 원조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은 각각 43.1%, 4.5%를 차지함.

그림 6. 코로나19,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원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4&pageCnt=10(검색일: 2023. 6. 26).

1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46478&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검색일: 2023. 5. 12); <https://www.economist.com/asia/2023/01/31/myanmars-civil-war-has-moved-to-its-heartlands>(검색일: 2023. 5. 12).

13) OECD(2022), "State of Fragility 2022."

14)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차등 배점하여 순위를 선정함.

나. 연구 목적 및 범위

- 이와 같이 분쟁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관련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분쟁취약국 지원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여 선진공여국으로서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OECD CRS 데이터베이스 상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의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분쟁, 평화 및 안보(152)’ 지원실적을 토대로 지난 10년간(2012~21년) 국제사회와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을 파악함.
 -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의 하위항목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일반(151)’과 ‘분쟁, 평화 및 안보(152)’ 총 2개임.
 - 나아가 본 연구의 주 관심항목은 아니나 취약국 지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도적 지원(700)’이 있음.

표 1. OECD DAC CRS 목적코드(분쟁취약국 지원 및 유사항목)

(100)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10) 교육
	(120) 보건
	(130)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
	(140) 물 공급 및 위생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700) 인도적 지원	(720) 긴급 구호
	(730) 재건 구호 및 복구
	(740) 재난 예방 및 대비

자료: OECD(2023), DAC and CRS code lists.

2.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가. 취약국과 분쟁취약국 기준 및 분류

- 세계은행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 개입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취약하거나 분쟁 상황에 있는 국가(FCS: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FCS 목록에 포함된 총 37개국 중 분쟁국가는 17개국에 달함.¹⁵⁾
- FCS 목록은 취약성과 분쟁의 차별화된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분쟁국가(Conflict)와 제도·사회적 취약국가(Institutional and Social Fragility)를 나누어 분류함.

15) 2006년 첫 발표 이후 FCS 분류기준, 목록, 목록명은 꾸준히 수정되어왔음. 세계은행 홈페이지, “Classification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last updated: 2023. 7. 10),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brief/harmonized-list-of-fragile-situations>(검색일: 2023. 7. 20).

- 분쟁국가는 인구 대비 분쟁 관련 사망 수를 기반으로 판단함.
- 제도·사회적 취약국가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투명성과 정부의 책임성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제도적 역량이 낮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표 2. 세계은행 FCS 목록(2023년)

분쟁국가(17개국)	제도·사회적 취약국가(20개국)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이라크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	△부룬디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아이티 △코소보 △레바논 △리비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수단 △동티모르 △투발루 △베네수엘라 △서안·가자 지구 △짐바브웨

자료: 세계은행(2023).

- [표 2]의 목록은 IMF, WHO를 포함한 타 국제기구에서 각 기관의 FCS 맞춤형 접근방식 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¹⁶⁾

■ OECD DAC은 2016년부터 다면적 취약성 프레임워크(Multidimensional fragility framework)를 개발하여 취약국을 발표하고 있으나 분쟁국 혹은 분쟁취약국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¹⁷⁾

- 다면적 취약성 프레임워크는 세계가 직면한 취약성을 ①경제적 취약성 ②환경적 취약성 ③인간적 취약성 ④정치적 취약성 ⑤안보적 취약성 ⑥사회적 취약성 총 6가지로 분류함.
- 2022년 총 60개국이 취약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15개국이 극도로 취약한 국가에 해당함.

표 3. OECD DAC 취약국 목록(2022년)

극도로 취약한 국가(15개국)	취약한 국가(45개국)
△소말리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시리아 △콩고공화국 △아이티 △부룬디 △수단 △에리트레아 △이라크 △적도기니	△리비아 △앙골라 △카메룬 △니제르 △말리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모잠비크 △기니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기니비사우 △잠비아 △코모로 △모리타니아 △동티모르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베네수엘라 △솔로몬제도 △지부티 △에스와티니 △투르크메니스탄 △라오스 △파테말라 △탄자니아 △케냐 △토고 △니카라과 △베넌 △북한 △레소토 △감비아 △서안·가자지구 △온두라스 △이란

자료: OECD(2022).

16) IMF(2022), "IMF Strategy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WHO(2021), "WHO presence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FCS), 2021."

17) OECD는 다면적 취약성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현재까지 총 4차례 취약국 목록을 발표한 바 있음. OECD DAC 취약상황 데이터 플랫폼, <http://www3.compar eyourcountry.org/states-of-fragility/overview/0/>(검색일: 2023. 6. 14).

■ EU는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 재난 위험 및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INFORM 위험지수(INFORM Risk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이 이를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음.¹⁸⁾

- INFORM 위험지수는 총 3개 차원과 6개 하위분류로 구성되며(표 4 참고), 이 중 분쟁 관련 위험은 ‘위해·노출’ 차원 아래 ‘인위적 위해’ 분류에 해당함.¹⁹⁾

표 4. EU의 INFORM Risk 구성요소

INFORM																	
위해 & 노출								취약성					대응역량 부족				
자연적						인위적		사회경제			취약그룹		제도		인프라		
지진	홍수	쓰나미	열대성 저기압	가뭄	유행병	현재 분쟁 강도	예상 분쟁 위험	발전 & 결핍	불평등	원조 의존도	난민, 이주민	기타 취약 그룹	재난 위험 관리	거버넌스	통신	물리적 기반 시설	보건 시스템 접근성

자료: DKMKC-INFORM, <https://drmkc.jrc.ec.europa.eu/inform-index/INFORM-Risk/Methodolog>(검색일: 2023. 6. 27).

- INFORM 위험지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점수를 10점 척도(0-10)로 부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인위적 위해 수준이 심각한(9점 이상) 국가는 아래의 25개국이었음.

표 5. 인위적 위험이 9점 이상인 국가 (2023년)

10점 (10개국)	9점 (15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리비아 △미얀마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이라크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우간다

자료: INFORM RISK 2023 Data.

- 동 지수를 세계식량계획(WFP)은 공동경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CHA)은 자금 조달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음.

18) European Union(2022), “INFORM Report 2022,” p. 2, p. 3, p. 7.

19) 분쟁 위험 정도는 현 분쟁의 강도와 예상되는 분쟁 위험에 따라 평가됨.

나.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논의

■ 최근 다수의 국제기구는 분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고 집단 번영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UN은 2022년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분쟁이 SDG4(교육), SDG5(성평등)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해 7월에 개최된 2023년 HLPF에서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한 국제사회 SDGs 달성 방안을 모색함.²⁰⁾
 - UN의 2022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SDG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에 따르면 분쟁은 SDG2(기아종식), SDG8(경제성장), SDG10(불평등 완화), SDG16(평화, 정의, 거버넌스)의 달성을 저해하기도 함.²¹⁾
- OECD DAC은 “2022 취약상황 백서(2022 State of Fragility)”를 통해 세계가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집단적 번영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²²⁾
 - 동 백서는 2020년 DAC 회원국의 취약국 분쟁 예방을 위한 ODA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지적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위기 속 개발협력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3가지 목표(△다차원적 접근 수용 △집단행동 촉진 △발전과 평화의 간극을 메우는 것)를 제시함.
- 세계은행은 빈곤 종식과 공동번영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약성, 분쟁 및 폭력(FCV: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세계은행 FCV 전략 2020-2025(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2020-2025)”를 수립함.²³⁾
 - 동 전략내용은 ①분쟁 전 취약성의 근본 원인 해결 ②인적자본 및 주요 기관 보존을 위한 위기상황 개입 ③국가와 시민 간 사회적 계약 강화 ④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으로 구성됨.
- IMF는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했으며 취약성과 분쟁을 ‘거시적 위기(macro-critical)’라고 평가하고 2022년 ‘분쟁취약국을 위한 IMF 전략(IMF Strategy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을 수립하였음.²⁴⁾
 - IMF는 지난 10년 동안 28개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75억 달러 상당의 긴급재정지원을 제공했고 팬데믹 기간에 세계은행과 함께 G20 채무상환유예이니셔티브(DSSI)를 적극 지원한 바 있음.
 - 주요 전략으로 IMF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분쟁취약국의 역량강화 지원, 취약국에서의 IMF 역할 확대,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를 꼽을 수 있음.

20) ECOSOC(2022),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2022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e 2022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on the theme “Building back better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hile advanc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 8-13; UN HLPF(2023), “Annotated Programme with speakers for the 2023 HLPF and ECOSOC High-level Segment,” p. 3, p. 6, p. 8, p. 18, p. 19.

21) UN(202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pp. 28-58.

22) OECD (2022), “States of Fragility 2022,” https://www.oecd-ilibrary.org/sites/c7fedf5e-en/1/3/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c7fedf5e-en&_csp_=ed992425c7db5557b78226a6c98c6daf&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검색일: 2023. 6. 14).

23)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2020-2025,”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overview#2>(검색일: 2023. 7. 5);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brief/harmonized-list-of-fragile-situations>(검색일: 2023. 7. 5).

24) IMF(2022), “IMF Strategy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FCS),” pp. 17-21. <https://www.imf.org/en/Topics/fragile-and-conflict-affected-states>(검색일: 2023. 6. 12).

■ 효율적인 평화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여주체·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집단행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평화 구축 및 국가 재건을 위한 국제협의(IDPS: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²⁵⁾는 평화 구축에 대한 집단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2019년 7월 UN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IDPS 2019-21 평화 비전(IDPS 2019-21 Peace Vision)’을 발표함.²⁶⁾
 - 동 비전은 최근 분쟁위기 속 SDG 16+²⁷⁾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화합 증진 △성평등과 여성, 평화 및 안보(WPS: Women, Peace and Security) 어젠다 지원 △평화 촉진역할을 하는 민간부문 지원 등 세 가지 주제에 우선순위를 둠.
- EU는 평화구축 활동을 EU 외교안보 관련기관인 유럽대외협력청(EA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과 대외정책실행국(FPI: 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s)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접근방식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²⁸⁾
- 유엔개발계획(UNDP)은 ‘평화 유지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법치 및 인권 강화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on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for Sustaining Peace and Fostering Development)’을 통해 UNDP 국가사무소, 정부, 시민사회, 기업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²⁹⁾

■ 한편 UN과 세계은행은 2018년 공동발표한 “평화를 위한 길: 폭력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포용적 접근(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을 통해 효과적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쟁 및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촉구함.³⁰⁾

- 동 보고서는 직접적 경제 손실, 인적 손실, 사후적 대응비용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때 사전예방이란 2016년 UN 총회와 안보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폭력적 갈등의 발발, 확대, 재발 또는 지속의 방지”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폭력위기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함.
- 동 보고서는 예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 노력과 분쟁의 주요 요인별 타기팅이 핵심임을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촉구함.

25) IDP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취약성과 분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발족되었으며, 취약성 및 분쟁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모임인 ‘g7+’, 공여국 협의체인 ‘분쟁 및 취약성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그리고 시민사회 협의체인 ‘평화 구축 및 국가재건을 위한 시민사회 플랫폼(CSPPS: Civil Society Platform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으로 구성된 정치적 협의체인.(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IDPS (2019), “IDPS 2019-21 Peace Vision,” https://www.pbsdialogue.org/media/filer_public/f8/5a/f85a6879-f10d-4c25-b776-6b65376fa0bd/final_idps_peace_vision_eng.pdf.

27) SDG16+는 SDG16(평화, 정의, 거버넌스)을 주 목표로 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경제·환경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른 SDGs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프레임워크임.

28) EU 국제 파트너십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eace-and-governance/peace-and-security_en#our-action(검색일: 2023. 6. 13).

29) UNDP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undp.org/rolhr>(검색일: 2023. 6. 13).

30) 세계은행, 유엔(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https://www.pathwaysforpeac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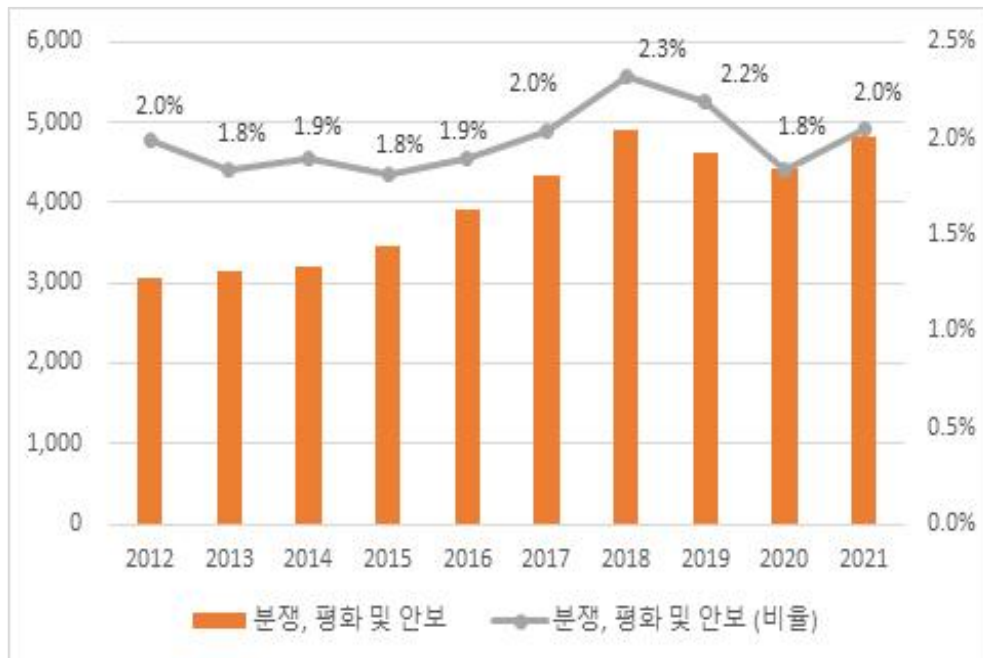
다.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 [규모] 국제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398억 5,818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전체 ODA에서 2% 수준임.³¹⁾

-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 규모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o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는 전체 ODA에서 2%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였음.

그림 7.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장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분야]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중 국제사회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세부분야는 '민간주도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분야'이며 10년 누적액 기준 그 비중은 58%에 달함.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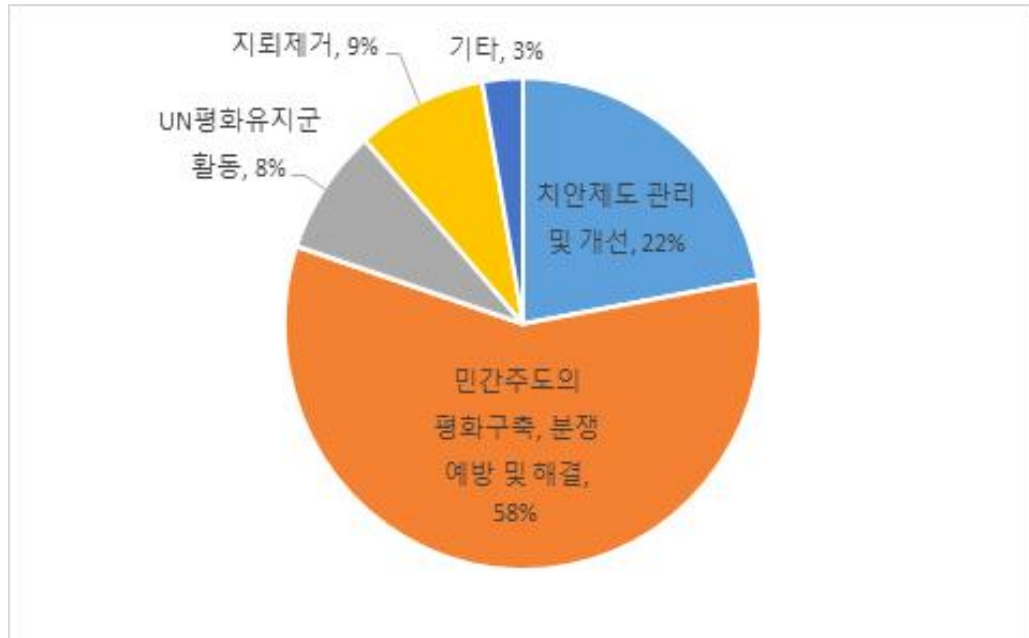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22%), 지뢰제거(9%), UN평화유지군 활동(8%)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음.³³⁾

31)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OECD CRS 데이터 152번(분쟁, 평화 및 안보) 지원 실적을 살펴보고 전체 ODA 규모는 1,000번(Total All Sectors)을 기준으로 하였음.

32) 본 연구에서는 OECD DAC CRS 목적코드 15210(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15220(민간주도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15230(UN평화유지군 활동), 15240(동원해제 및 무장해제), 15250(지뢰제거), 15260(소년병)을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세부항목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함.

33)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에서 비중이 5% 미만인 분야는 기타로 분류했으며 동원해제 및 무장해제(2%), 소년병(0.4%)이 포함됨.

그림 8.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세부항목 지원 비중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민간주도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시민사회활동가가 평화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국가-시민 간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독일의 CPS(시민평화서비스), 극단주의그룹에 대응하고 수원국의 안정화와 시민사회를 지원한 덴마크의 시리아-이라크 지역안정프로그램 등이 있음.³⁴⁾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수원국의 법 집행 및 법치제도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마약 생산 및 밀매, 국제 범죄 및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중앙아메리카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 수원국 경찰 당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장비, 교육을 제공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독일의 아프리카 경찰 프로그램 등이 있음.³⁵⁾
- [지뢰제거] 미국이 남수단, 스리랑카, 앙골라 등에서 다자기구 및 NGO를 통해 실시한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활동, 독일이 유엔지뢰행동서비스(UNMAS)를 통해 이라크에서 실시한 지뢰 및 급조폭발물 제거 작업 등이 있음.³⁶⁾

■ [유형] 국제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주로 프로젝트(66%), 비지정 기여와 합동 프로그램 및 기금(21%), 전문가와 기타 기술지원(11%)을 통해 개도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음.³⁷⁾

34) 사업 시행기관은 각각 독일의 GIZ, 덴마크 외교부임. The Royal Da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2016), "Regional Stabilisation Programme for Syria and Iraq, 2016-2018," <https://www.giz.de/en/worldwide/41095.html>(검색일: 2023.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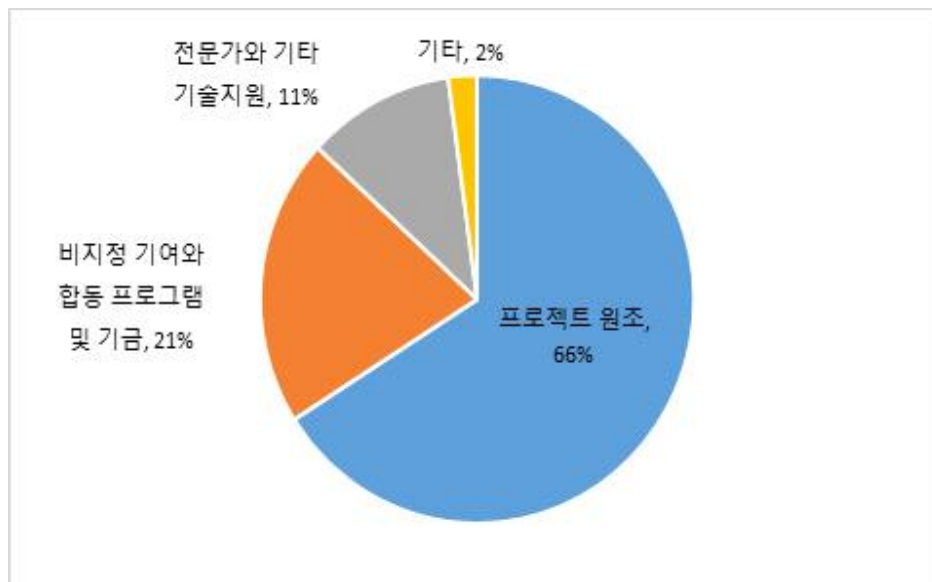
35) 사업 시행기관은 각각 미국 국무부의 국제마약사업집행국, 독일의 GIZ임. <https://2009-2017.state.gov/j/inl/regions/westernhemisphere/index.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5637.html>(모든 검색일: 2023. 6. 8).

36) 각 사업의 시행기관은 미국의 국방부, 독일의 외무청임.

37) 기타 유형으로는 예산 지원(2%), 공여국 내 장학금과 유학생 지원비용(0.04%), 행정 경비(0.04%), 기타 공여국 내 지출(0.001%)이 있음.

그림 9.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사업유형

(단위: %)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상위 수원국]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상위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콜롬비아·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 순임.³⁸⁾

- 상위 5개 수원국에 투입된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분야는 민간주도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인 것으로 나타남.

표 6.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수원국 순위

순위	수원국	지원규모 (백만 달러)	지원 비중
1	아프가니스탄	3,910.771	10%
2	이라크	2,160.568	5%
3	콜롬비아	2,099.707	5%
4	시리아	1,658.907	4%
5	소말리아	1,364.573	3%
6	우크라이나	1,251.407	3%
7	콩고민주공화국	1,065.157	3%
8	리비아	908.650	2%
9	말리	809.797	2%
10	남수단	776.76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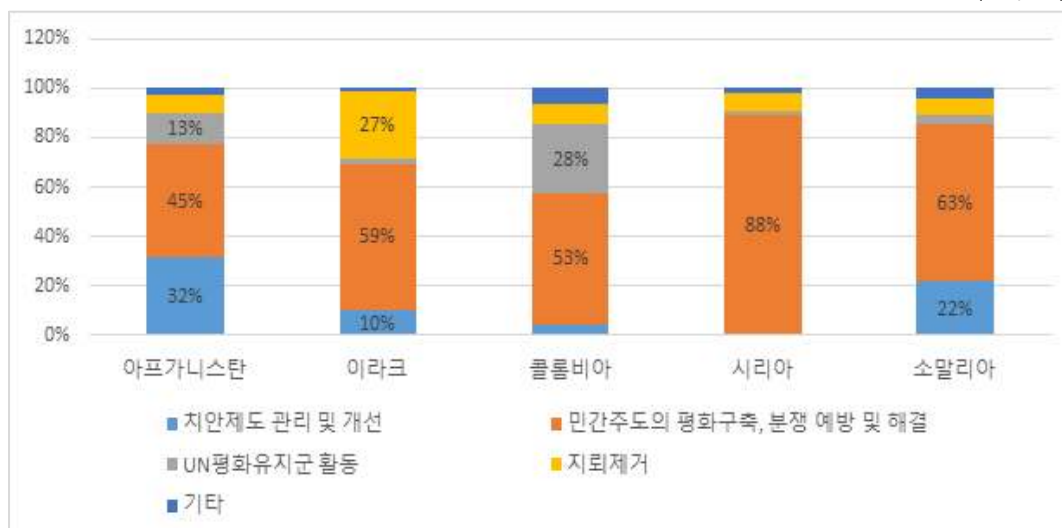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38)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말리 △남수단이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 대해 큰 규모의 ODA를 제공받았음.

그림 10. 상위 5개 수원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분야

(단위: %)



주: 비율,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라. 주요 공여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 [상위 공여국]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개선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 5개 국가는 미국·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 순임.

표 7.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양자 공여국 순위

순위	공여국	지원규모 (백만 달러)	지원 비중
1	미국	7,803	19.6%
2	독일	6,832	17.1%
3	영국	4,852	12.2%
4	노르웨이	1,916	4.8%
5	스웨덴	1,790	4.5%
6	네덜란드	1,692	4.2%
7	캐나다	902	2.3%
8	스위스	897	2.3%
9	덴마크	848	2.1%
10	일본	84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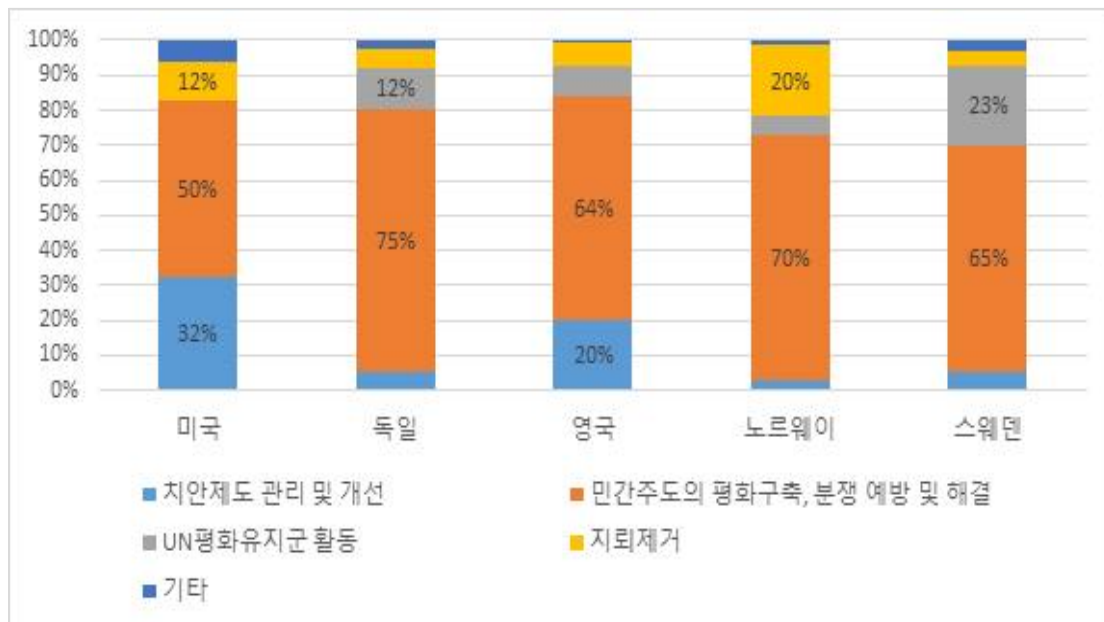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상위 5개 공여국의 경우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중 민간주도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
- o 민간주도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활동은 역량 강화, 모니터링, 담화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³⁹⁾

그림 11. 상위 5개 공여국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분야

(단위: %)



주: 비율, 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미국은 개발협력이 분쟁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정책수단임을 인지하고 분쟁 방지 및 자국에 위협이 되는 취약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USAID, 국무부, 국방부 등이 협력함.⁴⁰⁾
-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을 강조했으며 분쟁예방 및 안정성 축진을 위한 전략(2020)에서는 ①예방 ②안정화 ③파트너십 ④관리를 통해 미국, 다른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음.⁴¹⁾
- 지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콜롬비아·우크라이나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양의 ODA를 제공해왔음.

39) OECD(2023), DAC and CRS code lists.

40) OECD DAC(2022), "Peer Reviews: United States," pp. 42-43.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116/text>(검색일: 2023. 6. 15).

41) [예방] 평화를 구축하고 분쟁을 예방,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안정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정치과정을 지원, 소외된 집단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강조, 인권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중 [파트너십]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 및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 축진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 [관리] 미국 정부는 파트너와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통합,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더 효과적인 결과 도출. 미국 국무부(2020), "2020 United States Strategy to Prevent Conflict and Promote Stability."

■ 독일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접근⁴²⁾을 주도하고 있으며 분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⁴³⁾

- OECD DAC의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의 회원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취약국 개입에 일관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은 '위기 예방, 갈등 해결, 평화 구축에 관한 지침(2017)'을 기반으로 주요 범정부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BMZ의 '과도기 개발원조전략(2020)'⁴⁴⁾, GIZ와 KfW의 이행지침 및 전략에 따라 분쟁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음.⁴⁵⁾
- 독일의 BMZ는 10개국을 넥서스 및 평화 파트너국으로 지정하여 분쟁의 구조적 원인, 이주 및 폭력 해결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⁴⁶⁾
-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리비아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규모의 ODA를 제공해왔음.

■ 영국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국익으로 간주하여 ODA 등을 통해 취약국의 문제 해결에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⁴⁷⁾

-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2015)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실패와 불안정한 상황은 대규모 개발수요를 야기하는 등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해당 국가의 위기대응, 안정화 및 분쟁예방 지원을 통해 영국의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힘.⁴⁸⁾
- 영국 FCDO(영연방개발부)는 2022년 발표한 국제개발전략을 통해 분쟁취약국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 국방부문과 개발부문을 통합하여 해당 국가에서 갈등과 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⁴⁹⁾
- 영국 정부는 분쟁 및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ODA와 비(非) ODA 기금을 결합한 분쟁, 안정 및 안보 기금

42) 2016년 UN총회에서 평화의 중요성,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OECD는 2019년 2월 HDP 넥서스에 대한 DAC 권고를 발표하여 HDP 넥서스를 개발협력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회원국들이 HDP 넥서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권을 외(2019), pp. 55~56).

43) OECD DAC(2021), "Peer Reviews: Germany," pp. 107-108.

44) BMZ(2020), Strategy on 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pp. 12-15. BMZ의 '과도기 개발원조전략'의 중점분야는 △식량 및 영양 안보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 재구축 △재난위험관리 △평화롭고 포용적인 공동체이며, '평화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위해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사회적 결속 도모 및 차별, 폭력 극복 ▲평화 교육 주류화 및 비폭력 분쟁 전환 ▲성 기반 폭력 예방 ▲모든 사회적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 강화 ▲재원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하고 성별에 민감한 접근 촉진활동 수행을 강조함.

45) GIZ는 안보, 재건 및 평화를 위해 파트너국가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https://www.giz.de/en/ourservices/security_reconstruction_and_peace.html, 검색일: 2023. 7. 5). KfW는 SDG16(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이행을 위해 △평화 증진 및 갈등 해결 △거버넌스와 강력한 헌법 제도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의 확대 방지, 부정적 영향 완화, 거버넌스 및 합법적인 헌법기관 촉진을 추구함(<https://www.kfw-entwicklungsbank.de/SDG-portal/SDG-16/>, 검색일: 2023. 7. 5).

46) 10개국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리비아·시리아·차드·소말리아·예멘·콩고민주공화국·남수단·이라크·수단이 포함됨. BMZ(2020), "BMZ 2030 reform strategy," p. 7.

47) OECD DAC(2020), "Peer Review: United Kingdom," pp. 93-98.

48) 자국민 보호, 글로벌 영향력 표출, 국가 번영 증진을 주요 목표로 수립함. UK Cabinet Office(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2015," pp. 63-67.

49) FCDO(2022), "The UK Government'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 30.

(CSSF: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을 2015년에 출범시키고 8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음.⁵⁰⁾

- 분쟁 관련 성폭력(CRSV)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전략(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itiative Strategy)’을 수립했으며 △CRSV에 대한 글로벌 대응 강화 △근본 원인 해결을 통한 CRSV 예방 △정의를 강화하여 가해자에게 책임 부여 △생존자 및 폭력으로 탄생한 아동 지원 강화로 구성됨.⁵¹⁾
- 지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시리아·소말리아·이라크·레바논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해왔음.

■ 노르웨이는 인권, 평화 및 화해, 안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간 연계에 있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⁵²⁾

- 노르웨이는 ‘분쟁 예방, 안정화 및 탄력성 구축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2017)’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취약성 완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힘.
- 노르웨이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부터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⁵³⁾
- 노르웨이 정부의 평화구축 노력은 △당사자의 주인의식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모든 당사자와의 대화하려는 의지 △실패할 위험 수용 △인적·재정 자원활용 △긴밀한 협력 △경험과 지식기반 △공정한 중개역할 △포용적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음.⁵⁴⁾
-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소말리아·남수단·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해왔음.

■ 스웨덴은 ‘스웨덴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2016)’에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다차원적 빈곤 분석을 통해 분쟁취약상황에서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음.⁵⁵⁾

- 스웨덴은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위험, 취약성 및 복원력에 기반한 분석·계획·프로그래밍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자금 제공 △인도주의와 개발 간 위험, 복원력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화와 조정 확대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간 일관성을 구축하고자 함.
-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남수단·콩고민주공화국·소말리아·라이베리아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해왔음.

50)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nflict-stability-and-security-fund/about>(검색일: 2023. 7. 5).

51) FCDO(2022),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itiative Strategy, pp. 7-8.

52) OECD DAC(2019), Peer Review: Norway, p. 26, p. 88.

53) Norwegian Ministries(2019). Implementing Norway's National Action Plan 2019-2022 Women, peace and security. 주요 수혜대상은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필리핀, 남수단, 시리아, 아프리카 연합임.

54)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oreign-affairs/peace-and-reconciliation-efforts/innsiktsmappe/norway-peace-work/id446704/>(검색일: 2023. 6. 11).

55) OECD DAC(2019), Peer Review: Sweden, pp. 35-38, pp. 92-97; Government of Sweden(2016),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3.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및 전략

가.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현황

-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개선을 위해 1억 7,857만 달러의 ODA를 제공해왔으며 이는 전체 ODA에서 1%를 차지함.
- 우리 정부의 전체 ODA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액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공여 규모는 국제사회에서는 19위, DAC 회원국 중에서는 15위에 해당함.⁵⁶⁾

그림 12. 한국의 분쟁, 평화, 안보 부문 ODA 지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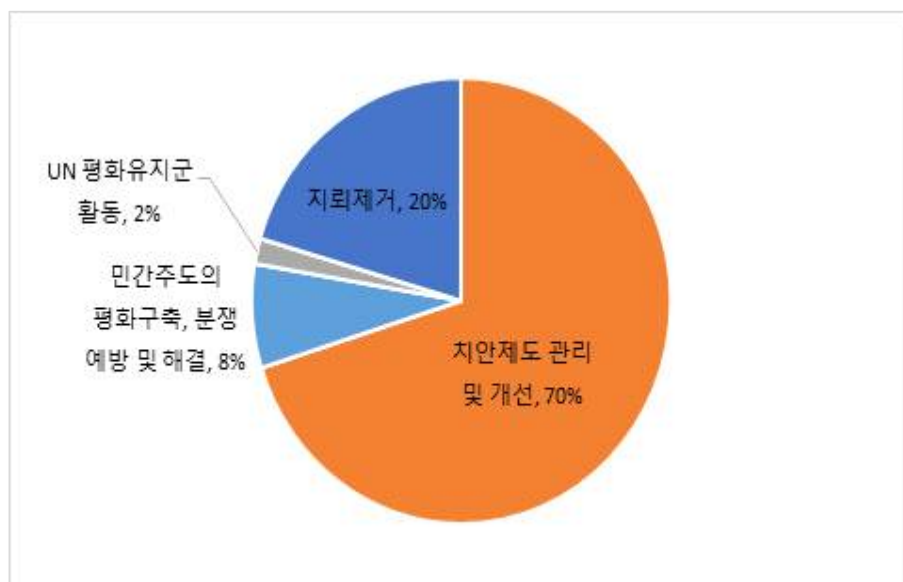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56) 전체 ODA 규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23위, DAC에서 14위 공여국에 해당함.

■ [분야] 한국이 지난 10년간 제공한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의 70%가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에 활용되었음.

그림 13. 한국의 분쟁, 평화, 안보 부문 ODA 세부항목 지원 비중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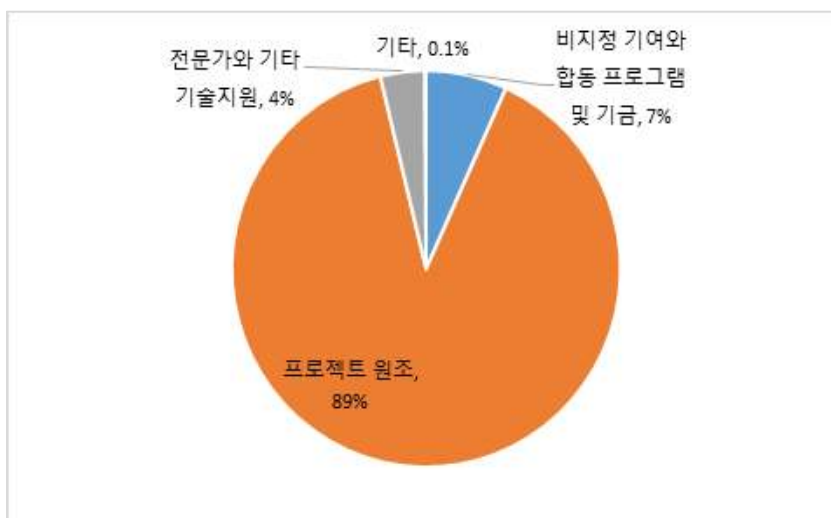
-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앙골라 치안강화사업,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속순시선 공급사업,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등이 포함됨.
- [민간주도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UNDP 남수단 평화구축 강화 및 공동체 통합 지원사업, UNDP 수단 내 분쟁지역 회복력 구축지원사업 참여 및 태국·라오스 평화 구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KOICA 봉사단 파견이 포함됨.
- [UN평화유지군 활동] CIMIC(Civil-Military Cooperation) 파견을 통한 남수단, 레바논 재건 지원이 포함됨.
- [지뢰제거] 한국-베트남 지뢰행동프로젝트, 캄보디아 평화마을 조성사업,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ITF) 지원 등이 포함됨.

■ [유형] 지난 10년간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개선을 위해 주로 프로젝트(89%) 방식으로 지원해왔으며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 중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임.

- 이 밖에도 비지정 기여와 합동 프로그램 및 기금(7%), 기술지원(4%)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음.⁵⁷⁾

57) 공여국 내 장학금과 유학생 지원비용은 기타로 분류함.

그림 14.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사업유형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 [상위 수원국] 지난 10년간 한국은 앙골라·인도네시아·베트남·엘살바도르·라오스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함.

표 8.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수원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원국	지원규모 (백만 달러)	지원 비중
1	앙골라	43.27344	24%
2	인도네시아	37.45818	21%
3	베트남	25.36504	14%
4	엘살바도르	6.840324	4%
5	라오스	6.612526	4%
6	수단	6.570139	4%
7	캄보디아	6.447178	4%
8	필리핀	6.398593	4%
9	온두라스	5.295165	3%
10	네팔	5.086991	3%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나. 한국의 분쟁취약국 지원전략

■ [취약국 지원 전략]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서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에 참여해왔고 2017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취약국 지원 전략을 의결했으며 KOICA, EDCF 또한 자체적으로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⁵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취약국 지원 전략에서는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세부 목표로 수립하고, 분쟁국가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함.⁵⁹⁾
 - 기본 원칙은 △취약국 지원 관련 국제적 원칙 존중 △범정부 협력 증진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평화구축-인도적 지원-개발원조 간 연계 및 정책 일관성 제고로 구성됨.
 - 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지원 필요성, 한국의 평화구축 활동 현황, 국제 취약국 지표상 위험 국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국을 선정함.
 - 분쟁국가에서 초기 복구, 사회 재통합 역량 및 취약계층(아동/여성) 지원 강화를 중점지원분야로 수립하고 △기초 공공 서비스 제공 확대 △무장해제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평화 기반 구축 시 여성 참여 증진, 취약계층 피해자 회복 지원이 이에 포함됨.
 - 국제기구, INGO와의 연계를 통한 분쟁 취약국 접근성 확대, 유엔 평화 활동과 연계한 분쟁예방 및 갈등 치유를 주요 협력방식으로 제안함.
- KOICA는 2012년에 기관 차원의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처음 수립하였고 이후 KOICA 취약국 지원 중기 이행전략(2017~19), 거버넌스·평화 중기전략(2021~25)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수행하고 있음.⁶⁰⁾
 - KOICA 거버넌스·평화 중기전략(2021~25)에서는 △분쟁예방 및 평화로운 삶의 기반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법·치안제도 △책임 있고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전략목표로 제시함.
 - 분쟁취약국에 대해서는 주로 UNDP, UNICEF,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 양자사업을 추진했음.
- EDCF는 2017년에 취약국 지원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세계은행에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KTF)’을 출연함.
 - 취약국 지원원칙은 △취약국 이슈 주류화 △포괄적 공공서비스 지원 △채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원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포괄적 공공서비스 지원원칙은 분쟁 후 취약국의 국가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원칙을 제시함.
 -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KT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국, 취약국의 경제재건과 평화적 체제 구축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했으며 위기관리, 분쟁민감성⁶¹⁾ 활용전략 등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었음.

58) 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pp. 140~152.

59) 기획재정부, 외교부(2017), 취약국 지원전략, pp. 6~9.

60)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kr/910/subview.do (검색일: 2023. 8. 9.)

61) 분쟁민감성(conflict sensitivity)은 분쟁취약성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의미함. (권율 외(2019))

■ [유관 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인도적 지원 전략 및 다자협력 추진 전략,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의결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 등에 분쟁취약국 지원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인도적 지원 전략(2015년 의결)은 분쟁 등에 기인한 인도적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만성적인 자원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⁶²⁾
- 다자협력 추진전략(2022년 의결)에 다자협력은 △다자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 △양자협력이 어려운 지역 △국 체계구 전문성 활용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다자성양자 사업은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미소재지 △취약 지역 및 분쟁 지역을 우선으로 발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⁶³⁾
 - 자유, 평화, 인권,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함.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2021년 의결)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 강화를 통한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 확대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 강화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⁶⁴⁾

4. 결론 및 시사점

■ 복합 위기 속에서 다차원적 파급효과가 있는 개도국의 분쟁위기에 대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자 지원 확대, 유관 기관 및 전략간 연계 강화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더불어 지역 및 상황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최근 발생하는 분쟁은 지역간, 국가간, 국가 내 등 그 층위가 다양하고, 기후,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위기가 서로 얽혀있어 단편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어려움.
- 분쟁 및 안보 부문 협력은 외교안보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국내 유관 부처 및 전략간 연계를 통하여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미국, 영국, EU는 유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전략과 분쟁 지원전략을 연계하는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한 분쟁취약국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자성 원조를 확대하여 전 세계 다양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복잡한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분쟁취약국 지원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전문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별 공여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지역 및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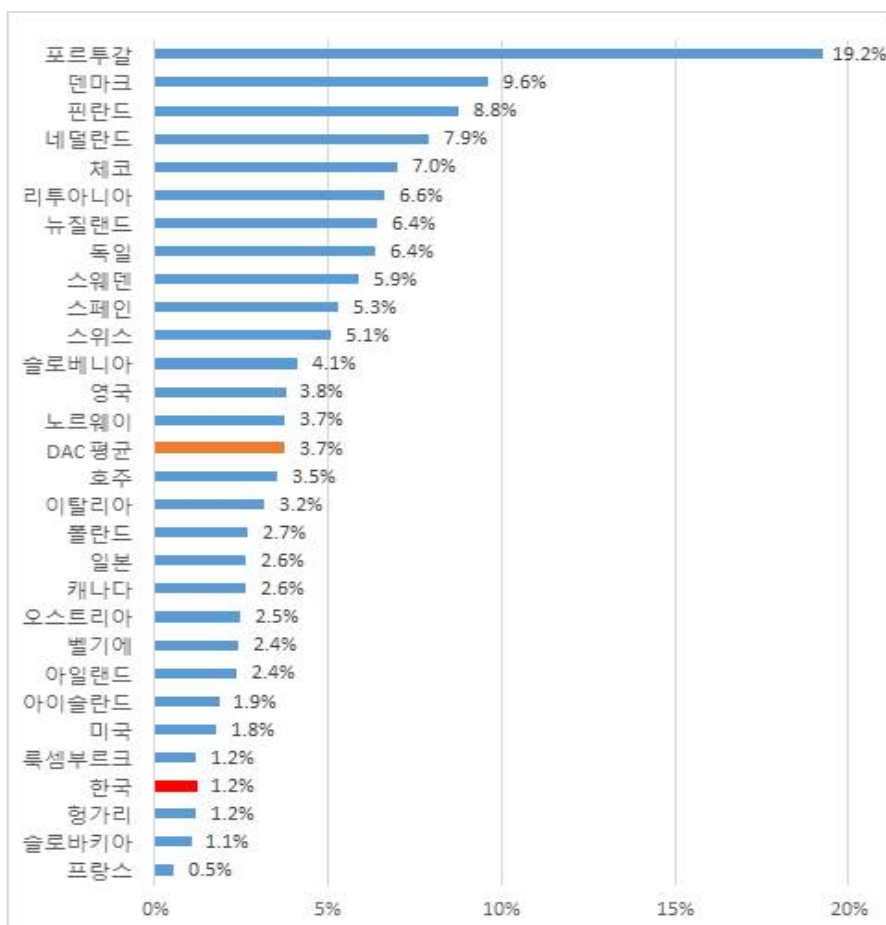
62) 외교부(2015),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63) 관계부처 합동(2022),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6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45>(검색일: 2023. 6. 8).

- 아울러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평등, 환경, 보건 등과 같은 범분야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업 기획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분쟁은 지역별, 상황별 특수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자성양자 사업유형을 활용할 수 있음.
-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FCS(취약하거나 분쟁 상황에 있는 국가) 목록, OECD DAC의 다면적 취약성 프레임워크, EU의 INFORM Risk Index 등 다양한 관점의 취약성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간 한국의 다자성 양자 ODA 중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은 1.2%를 차지하여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3.8%에 못 미치고 있으며 29개 회원국 중 전체 분야 대비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다자성양자 ODA 비율이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⁶⁶⁾

그림 15. DAC 회원국별 다자성양자 ODA 중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비율(2012~21년 누적)



주: 총지출액, 2021년 고정가격 기준, 2012~21년 누계

자료: OECD.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산출.

65) 조현주 외(2015),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관한 탐색적 연구, p. 40.

66) 개도국의 분쟁취약국 지원을 위해 OECD DAC 회원국은 △UNDP △IOM △OSCE △UNDP △UNMAS 등과 주로 협력하며 한국은 △UNDP △UNMAS △UNESCO △UN 여성기구 △IOM 등과 주로 협력함.

■ HDP Nexus 접근을 위해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평화 ODA를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노력 간의 분절화를 최소화해야 함.

- 2021년 기준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평화 ODA는 줄어드는 추세임.⁶⁷⁾
-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는 전체 ODA의 1% 수준이며 이는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2.4%에 못 미침.
- 주요 공여국/기관은 분쟁취약국에 대해 HDP Nexus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여 분쟁취약국 지원효과성을 제고하고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스웨덴, EU는 인도적지원-개발-평화(HDP) 간 연계를 강화하여 분쟁취약국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 함.
 - 한국은 인도적 지원 전략(2015년 의결)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언급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2021년 의결)에서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 비중이 낮고, 분쟁취약국과의 협력 비중도 낮으므로 분쟁취약국을 타기팅(targeting)한 지원 확대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간 평화수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이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양의 ODA를 제공한 5개 수원국 중 세계은행의 분쟁취약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없음.
 - 아울러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상위 5개 수원국은 INFORM 위험지수에서 인위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앙골라만이 OECD 취약국 목록에 포함됨.
-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상위 5개 수원국 중 2~3개 국가가 세계은행 기준 분쟁취약국, 3~4개 국가가 OECD 기준 취약국, 2~4개 국가가 INFORM 위험지수가 높은 국가임.
- 지난 10년간 한국이 다자성양자 ODA를 가장 많이 제공한 상위 5개 수원국은 분쟁취약국에 해당하나 이들 국가에 제공된 다자성양자 ODA의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는 작은 규모로 제공되었음.
 - 한국의 다자성양자 ODA 상위 5개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티오피아 △이라크 △시리아이고 이들 국가에 제공한 다자성양자 ODA 중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 98%, 77%, 97%, 94%임.⁶⁸⁾
 -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다자성양자 ODA 상위수원국은 △수단 △캄보디아 △라오스 △남수단 △몽고민주공화국이며 이들은 분쟁취약국에 해당하지 않음.

67) Sida, Development Initiatives(2023), "Leaving no crisis behind with assistance for the triple nexu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funding in crisis contexts," <https://devinit.org/resources/leaving-no-crisis-behind-assistance-triple-nexus-humanitarian-development-peace-funding/>.

68)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의 다자성양자ODA 최대 수원국이자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다자성양자 ODA 6번째 상위수원국이나 전체 다자성양자 ODA에서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며 34%가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다자성 양자 ODA에 투입되었음.

표 9. 주요 공여국별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상위 5개 수원국의 (분쟁)취약국 여부

국가	세계은행		OECD		INFORM 위험지수		미포함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	제도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가	극도로 취약한 국가	취약한 국가	10점	9점	
한국				앙골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엘살바도르, 라오스, (앙골라)
미국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콜롬비아
독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콜롬비아
영국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노르웨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이라크	콜롬비아
스웨덴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콜롬비아

주: 괄호는 분류 기준에 따라 미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국가임.

자료: 세계은행, OECD, EU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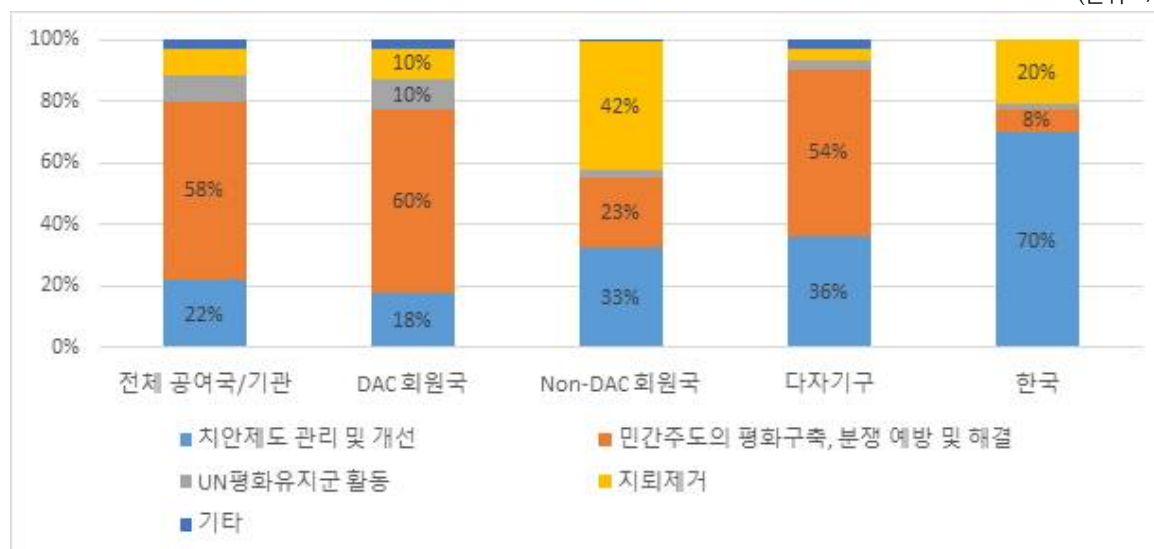
■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 및 비용이 매우 크므로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및 방지를 위한 ODA 확대가 필요함.

- 2018년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발표한 “평화를 위한 길: 폭력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포용적 접근” 보고서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⁶⁹⁾
 - 유엔과 세계은행은 동 보고서를 통해 분쟁예방의 1차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시민사회, 민간부문, 지역사회 및 국제기구의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는 개도국의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과 더불어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민간주도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비중이 전체 공여국, DAC 회원국, Non-DAC 회원국, 다자기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KIEP**

69) 세계은행, 유엔 (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https://www.pathwaysforpeace.org/>.

그림 16. 국제사회의 분쟁, 평화 및 안보 ODA 세부항목 지원 비중

(단위: %)



자료: OECD Stats.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2. 다자협력 추진전략 ('22-'26).
- 권율 외. 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7. 취약국 지원전략.
- 외교부. 2015.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 조현주 외. 2015.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영문자료]

- BMZ. 2020. “Strategy on 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 European Union. 2022. “INFORM Annual Report 2022.”
- FCDO. 2022.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itiative Strategy.”
- FCDO. 2022. “The UK Government’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Government of Sweden. 2016.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 IDPS. 2019. “IDPS 2019-21 Peace Vision.”
- IMF. 2022. “IMF Strategy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FCS).”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23. “Global Peace Index 2023.”
- Norwegian Ministries. 2019. “Implementing Norway’s National Action Plan 2019-2022 Women, peace and security.”
- OECD. 2022. “State of Fragility 2022.”
- OECD. 2023. “DAC and CRS code lists”
- OECD DAC. 2019. “Peer Review: Norway.”
- _____. 2019. “Peer Review: Sweden.”
- _____. 2020. “Peer Review: United Kingdom.”
- _____. 2021. “Peer Reviews: Germany.”
- _____. 2022. “Peer Reviews: United States.”
- Sida, Development Initiatives. 2023. “Leaving no crisis behind with assistance for the triple nexu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funding in crisis contexts.”
- The Royal Da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6. “Regional Stabilisation Programme for Syria and Iraq, 2016-2018.”
- UK Cabinet Offic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2015.”

- U.S. Department of State. 2020. “2020 United States Strategy to Prevent Conflict and Promote Stability.”
- UN.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 UN ECOSOC. 2022.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2022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e 2022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on the theme “Building back better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hile advanc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 SDSN. 2023.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 UN HLPF. 2023. “Annotated Programme with speakers for the 2023 HLPF and ECOSOC High-level Segment.”
- WHO. 2021. “WHO presence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FCS) 2021.”
- World Bank, UN. 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온라인 자료]

-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oreign-affairs/peace-and-reconciliation-efforts/innsiktsmappe/norway-peace-work/id446704/>(검색일: 2023. 6.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3. 30).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45>(검색일: 2023. 6. 8).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s://2009-2017.state.gov/j/inl/regions/westernhemisphere/index.html> <https://www.giz.de/en/worldwide/15637.html>(모든 검색일: 2023. 6. 8).
- 미국 국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116/text>(검색일: 2023. 6. 15).
- 세계은행(2023. 7. 10). “Classification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brief/harmonized-list-of-fragile-situations>(검색일: 2023. 7. 20).
- 세계은행(2023. 4. 27). “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2020-2025.” <https://www.worldbank.org/en/topic/fragilityconflictviolence/overview#2>(검색일: 2023. 7. 5).
- 세계은행(2020. 6. 31). “The Fallout of War: The Regional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in Syria.” <https://www.worldbank.org/en/region/mena/publication/fallout-of-war-in-syria>(검색일: 2023. 5. 12).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nflict-stability-and-security-fund/about>(검색일: 2023. 7. 5).
- 임팩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s://impactlibrary.net/entry/UN-SDGs-goal-16>(검색일: 2023. 7. 19).
- EU 국제 파트너십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eace-and-governance/peace-and-security_en#our-action(검색일: 2023. 6. 13).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drmkc.jrc.ec.europa.eu/inform-index/INFORM-Risk/Methodology>(검색일: 2023. 6. 27).
- GIZ 홈페이지. “African Police Programme.” <https://www.giz.de/en/worldwide/15637.html>(검색일: 2023. 6. 8).
- _____. “Civil Peace Service: Global programme.” <https://www.giz.de/en/worldwide/41095.html>(검색일: 2023. 6. 8).
- _____. “Security, reconstruction and peace.” https://www.giz.de/en/ourservices/security_reconstruction_and_peace.html(검색일: 2023. 7. 5).

- IMF 홈페이지. <https://www.imf.org/en/Topics/fragile-and-conflict-affected-states>(검색일: 2023. 6. 12).
- KfW 홈페이지. “SDG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SDG-portal/SDG-16/>(검색일: 2023. 7. 5).
- KIEP AIF(2023. 5. 5). “[이슈트렌드] 미얀마, 전투원 동원·군부 폭력 등으로 아동 인권문제 대두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46478&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검색일: 2023. 5. 12).
- KIEP AIF(2021. 6. 28). “[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 내전의 양상과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7311&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4&pageCnt=10(검색일: 2023. 6. 26).
-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kr/910/subview.do (검색일: 2023. 8. 9).
-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dac/states-of-fragility-fa5a6770-en.htm>(검색일: 2023. 7. 20).
- OECD DAC 취약상황 데이터 플랫폼. <http://www3.compareyourcountry.org/states-of-fragility/overview/0/>(검색일: 2023. 6. 14).
- The Economist(2023. 1. 31). “Myanmar’s civil war has moved to its heartlands.” <https://www.economist.com/asia/2023/01/31/myanmars-civil-war-has-moved-to-its-heartlands>(검색일: 2023. 5. 12).
- UK Parliament(2022. 11. 11). “Conflict in the Tigray region of Ethiopia.”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conflict-in-the-tigray-region-of-ethiopia/>(검색일: 2023. 5. 12).
- Uppsala University 홈페이지.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9727706128440736_33(검색일: 2023. 7. 4).
- UN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goal16>(검색일: 2023. 7. 18).
- UN(2023. 3. 6). “One year of the war in Ukraine leaves lasting scars on the global economy”(검색일: 2023. 5. 12).
- UNDP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undp.org/rolhr>(검색일: 2023. 6. 13).
- Vision of Humanity 홈페이지. <https://www.visionofhumanity.org/maps/#/>(검색일: 2023. 6. 29).

[통계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3. 5. 2).